보기좋고 기능많고 오래가고

한국옻칠화회전으로 본 옻칠세계

2004년 창립한 한국 최초의 칠화 단체인 한국옻칠화회가 세 번째 전시 한국옻칠화회전 '교감'을 3월 11~31일 경기도 남양주 리즈갤러리(031-592-8460)에서 개최하고 있다.

옻칠화는 흔히 알고 있는 나전칠기 등으로 대표되는 옻칠공예를 현대적 회화의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들이다. 가구나 생활용품 등의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당당한 회화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2004년 한국옻칠화회가 창립될 당시에도 기존 작가들에게조차 옻칠화는 낯설고 생소한 분야였다. 현대 칠공예의 지류쯤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였다.

젊은 작가 15명이 모여 결성한 한국옻칠화회는 창립 후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전통 옻칠을 현대적인 틀로 옮겨 담으며 옻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옻칠 본연의 가치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거쳐 그들만의 작품성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온 옻칠화회는 옻칠이라는 특별한 재료와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들만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한국 화단에 하나의 장르로 뿌리를 내려 꾸준하게 발전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한다.

한국옻칠화회의 류미경 박사(중국회화사 전공)는 "옻칠을 재료삼아 하는 작품은 어떤 표현매체보다도 작가와 재료간의 절실한 교감을 강조할 것"이라며 "칠한다는 표현보다는 한 층 한 층 쌓아올린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은 옻칠화 작업과정은 천연적인 인간의 교감을 요구한다"는 말로 세 번째 옻칠화 전시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교감에 대한 폭과 깊이의 중요성을 상기해보며 관람하기에 적절한 세 번째 전시회에서는 송완근의 '회(回)', 배은혜의 '心', 박혜신의 '108' 등 작품 14점이 선보인다.

현대화와 전통 계승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옻칠. 옻칠의 세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옻은 옻나무에서 얻는 천연수지 유성도료이다. 이러한 옻을 사용한 옻칠은 한국과 중국 · 일본에서 예로부터 금속이나 목공 도장용(木工塗裝用)으로 소중히 여겨왔던 도료로 특히 칠기류에 많이 사용된다.

옻칠을 하면 방수방습 효과가 탁월하다. 옻이 목재 안으로 스며들어 비닐처럼 막을 형성해서 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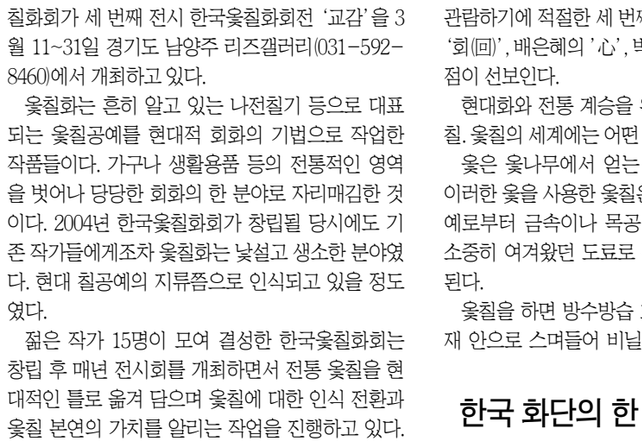
한국 화단의 한 장르로 성장
옻나무서 얻은 천연 도료 사용
생활용품에서 회화까지 다양
불기 · 불구용품 등에 많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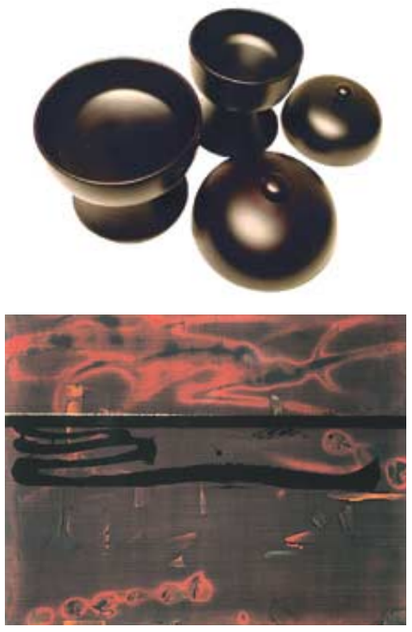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옻칠한 것은 부패나 변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등 기능에서도 훌륭한 소재이다.

옻칠의 역사는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에는 현재 우리가 '옻칠'하면 쉽게 떠올리는 나전칠기가 발달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양한 칠기제품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에까지 그 전통의 맥이 활발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 때 옻칠 문화를 빼앗긴 탓도 있지만 천연 옻에서 채취한 생칠 대신 화학재료인 '카슘'이 널리 사용되면서 전통 옻칠 작품은 점점 사라져 갔다. 1960년대 자개를 붙이는 나전기법을 남용한 틀에 박힌 디자인의 제품이 생산되면서 작품성마저 떨어져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장에는 칠예가 전용복(일본 이와야마 칠예미술관 회장)씨가 제작한 옻칠 장식


옻칠작업으로 제작한 '오합발우'.


나무에 옻칠로 회화를 그린 이종헌 作 '無題'.

장과 회화가 설치돼 세계 정상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전용복씨가 전통 옻칠 기법과 한국적인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작한 옻칠병풍과 소형 장식장 등 옻칠 회화 · 가구 등은 이후 일반에 공개되면서 그 화려함과 우아함을 인정받았다.

가구와 생활용품에서 회화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옻칠을 불교에서는 발우를 비롯해 불단에 올리는 불기와 불구용품 등으로 활용해 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옻칠 불구 제작 공정

①백골 사포-백골의 거친 표면을 칠 작업 전에 곱게 사포질한다. ②초칠-나무에 충분히 스며들게끔 칠을 묽게 해서 바르며, 여기에 쓰이는 칠은 생칠을 한다. ③초칠건조-습도가 약 70~75% 정도 되는 건조장에서 약 3~7시간정도 건조하며, 많게는 18시간 정도 건조하는 경우도 있다. ④토칠-토질은 흙가루와 생옻칠을 곱게 혼합하여 나무의 눈메를 메우는데 쓰인다. ⑤토칠 한 후 사포질-토칠한 후에 거친 목재표면을 120~320# 정도의 사포로 문질러 목재의 표면을 곱게 갈아준다. ⑥중칠-토칠 후 사포질한 제품을 4~5회 정도 반복하여 칠한다. 이때는 정제 주합칠을 사용한다. 여기서 정제 주합칠을 하는 이유는 칠의 변색이 없고, 강도가 강하며, 투명도가 높아서 질을 한층 더 높여주기 때문이다. ⑦상칠-이런 위 과정을 거쳐서 7~8회 정도 여러 번 반복하여 칠한 후 완성품을 만들어 낸다.

흥겨운 '퍼포먼스'의 場

봉은사, 故백남준 49재 현장

작품 '바이올린을 위한 하나' 100여 시민 참여 재연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엄숙하게 진행되는 49재가 한바탕 흥겨운 '퍼포먼스'의 장으로 열렸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세계적 예술가 故 백남준 선생의 49재는 역시 달랐다.

1000여명의 불자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3월 18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열린 백남준 선생의 49재는 모든 참가자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불교를 표현하는 수많은 작품을 내놓았던 백남준 씨의 49재를 봉은사에서 봉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백남준 선생의 조카 켄 백 하쿠다 씨도 "삼촌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행사는 창의적이면서도 함께 즐기는 행사로 준비했다"며 환영했다.

무속인 이비나씨의 진혼굿으로 막을 올린 이날 49재는 하쿠다씨가 바이올린에 줄을 매달아 끌고 다니는 '바이올린과 끈'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 1962년 백남준 선생이 직접 보여줬던 퍼포먼스 '바이올린을 위한 하나'를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재연하기도 했다. 이 퍼포먼스는 바이올린을 내리쳐서 부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촛불과 온몸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 후 모형 촛불탑에 촛불을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친구들과 함께 봉은사를 찾은 조주영(25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씨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줬던 그대로 진행된 49재였다"며 "앞으로도 백남준 선생의 미공개 작품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남준 선생의 불교사상을 느끼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힌 서울 반야사 주지 원욱 스님도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날 49재에는 봉은사 주지 원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백남준 선생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 조카 켄 백 하쿠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존 헨허트, 백남준 스튜디오 큐레이터 존 호프먼씨 등이 참석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바이올린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남준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진혼굿.

한 시민이 발로 건반을 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초 스님 작법무 공연

삼론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인천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이 3월 31일 오후 7시30분, 4월 1일 오후 4시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인천시립무용단 창단 25주년 기념 '2006 우리 소리와 춤의 어울림' 공연에서 작법무를 선보인다.

이날 일초 스님은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으로 공연 1부를 열 예정이다. 일초 스님의 공연 뒤에는 능화 스님(인천무형문화재 제10-가호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의 법고무가 이어진다.

2006 독일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기도 하는 '2006 우리 소리와 춤의 어울림'은 국악관현악단과 화가 2인의 그림굿을 비롯해 국악가요 민요 합창 무용 등이 공연된다. (032)438-7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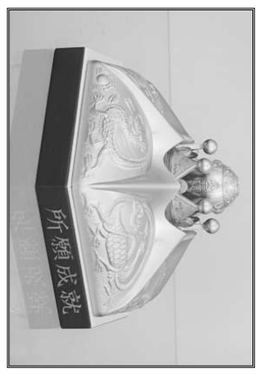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9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6년 4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06년 4월 11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세계적인 위빠싸나 큰 스승 우 빤디따 사야도
초청 명상 수행 안내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타에서는 봉인사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위빠싸나 수행의 큰 스승이신 빤디따라마 쉐다웅꼰 사야도지(우 빤디따 사야도)를 모시고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42일간의 집중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수행 기간 동안 교학과 수행이 높으신 우 따마네죠 사야도와 두 분의 세얄레이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야도지와 함께하는집중 수행은 마하시 방법의 위빠싸나 명상 수행이며 위빠싸나 수행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임으로써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입니다.

계율이 청정하시며 또한 자애로우신 사야도지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귀한 기회이오니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 센타 · 봉인사 합장
1. 수행 기간 : 2006년 4월 15일 - 5월 26일(42일간)
2. 수 행 처 : 봉인사 (www.bonginsa.net, 031-574-5585)
3. 접수일과 접수처(문의) : 3월 14일 - 3월 31일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타
전화 : 02)2235(2232)-2841 / 이메일 : byunsh1@hanmail.net
http://www.panditarama.com
※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로써 선업 공덕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영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영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영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영당육氣방 0507)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영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